

# 광주 마을 갈등 해결창구 '소통방' 20곳으로 확대

### 마을분쟁센터 조정 전 단계 9개 마을 주민 직접 화해 주도 타 지자체 사례 배우러 오기도

광주지역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뒷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참지 못해 항의하다 오히려 갈등만 커졌다. 법적 소송까지 생각하던 중 마을 소통방을 소개받아 뒷집 B씨와 함께 화해지원을 신청, 조력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금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소통방'이 광주의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지방법원과 함께 마을의 분쟁은 지역사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 협의 절차 등을 거쳐 같은 해 9월 남구에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주민 자율을 기반으로 한 전국 첫 분쟁해결 기구로 광주시와 남구,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 전문가, 마을 덕망가 등 민관이 폭넓게 참여해 주민 간 갈등을 조정, 화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해부터는 남구에 송화마을 공각지 소통방, 오카리나문화마을 소통방 등 마을 단위 소통방도 9개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소통방은 센터에서 양성교육을 받은 주민이 직접 화해 지원인으로 나서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쟁이 발생해 소통방에 화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소통방은 주민 화해 지원인을 중심으로 분쟁 당사자 간 화해를 지원한다. 소통방에서 화해가 성사되지 않으면 분쟁은 센터로 이관돼 법률인 등 전문가 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다시 조정과 화해절차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센터와 소통방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223건에 달했다. 형태는 증간소음, 생활수소, 주차, 흡연, 애완동물 등으로 다양했다. 해결건수는 총 182건으로 81.6%의 높은 화해 성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광주의 분쟁해결 모델은 관이 주도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적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어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덕분에 지난 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거머쥔데 이어 올해는 국무총리상, 국민대통합위원회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의 분쟁해결 모델을 배우려는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중구, 대구 수성구 등 지자체와 한국갈등해결센터 등 민간기업이 자율적 분쟁해결 모

범사례로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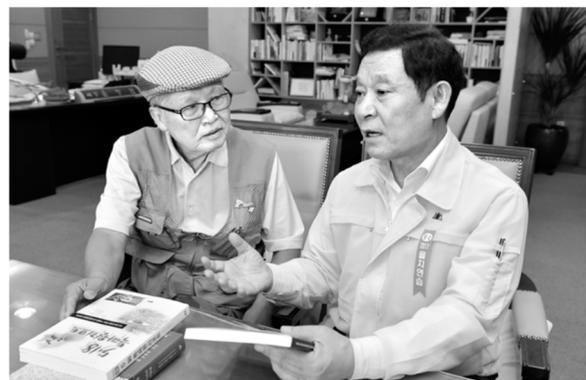
광주시는 현재 남구에 설치된 센터와 소통방을 나머지 4개 자치구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소통방은 올해 안에 20곳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남구 7곳,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각 1곳 등이 들어선다. 센터도 내년엔 이미 설치된 남구를 제외하고 4개 자치구에 각 1곳이 설치된다.

문정찬 시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은 "나날이 늘어나는 이웃 간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며 "시민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광주가 가진 공동체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인 만큼 광주형 모델이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힌즈페터 등 참여 '5·18특파원 리포트' 눈길



윤장현(오른쪽) 광주시장이 24일 오전 시청 집무실에서 인권활동가 서유진씨와 '5·18특파원 리포트' 출간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 20년 전 윤장현 시장·인권활동가 서유진씨 발간

"우리를 안내할 차를 운전하기 위해 '김사복'이라는 한국 사람이 우리가 도작하기 훨씬 전부터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5·18의 참상을 가장 먼저 해외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즈페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 열풍으로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이름을 최초로 언급된 책 '5·18특파원리포트'(풀빛, 1997)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책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997년 시민연대모임 대표로 활동할 당시 아시아 인권활동가 서유진 씨와 의기투합해 발간했다.

서씨는 "20년 전 여전한 소외와 차별로 철축 같은 어둠의 광주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다시 광주로 들어오자는 윤시장의 제안에 나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라면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 시장과 서씨는 1980년 5월 26일 전남도청에서 산화한 윤상선 열사의 마지막 외신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내외

신 기자들을 수소문해 찾지 시작했고, 블레드리 마틴('볼티모어 선' 서울특파원)을 시작으로 위르겐 힌즈페터(독일 제1공영방송 기자), 테리 앤더슨(AP통신 기자) 등 18명을 찾아 17년 만에 다시 광주로 초청했다.

비행기값과 숙박비를 모두 개인적으로 부담해 역사의 산 증인을 한 자리에 모은 윤 시장은 이들에게 "기자로서 못 다한 이야기, 한 인간으로서 80년 5월 광주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글로 써 달라"고 부탁했고, 이렇게 모아진 체험록이 '5·18특파원 리포트'로 출간됐다.

이 책에는 위르겐 힌즈페터를 비롯해 외신기자 8명과 내신기자 9명 등 17명의 생생한 광주의 기록들이 담겨 있다.

또 이 책은 'Kwangju in the Eyes of the World'라는 제목의 영어판도 함께 출간되어 5·18의 참상과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2000년 'The Kwangju Uprising'이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다시 한 번 출간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공사

### 인재양성 우수 기관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사진)가 정부가 인준하는 '공공부문 인재개발(Best HRD)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Best HRD'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5개부처가 인적자원개발 관리의 모범이 되는 기업 및 단체·공공기관을 공동으로 인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증심사에서 공사는 전기·차량분야 포함 총 6명의 기술사를 배출하는 등 수준 높은 인재 양성 성과로 눈길을 모았다. 또한 2020년까지 현원대비 3% 기술사를 확보하는 등의 장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인력양성에 큰 의욕을 보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 북구 임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에 참여해 운동을 하는 모습. <북구 제공>

## 체조교실 운영·동아리 지원... "아파트 주민 건강 챙겨드립니다"

### 북구, 1600명 대상

광주시 북구가 추진하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북구는 지역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율이 63.9%로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 자기 건강관리능력 강화 등 주민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2개 아파트(두암동 율곡

타운·임동 주공) 주민 1600여명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만성질환예방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민 건강교실, 어르신 실버 체조교실 및 직장인 야간 요가교실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주민리더 양성 및 아파트 건강협의체 구성하고 각종 건강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아파트 내 주민모임 '건강육아 돌봄공동체'를 지원해 그림책교실, 영양교육, 건강조미료 만들기, 원예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 건강공동체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임동 주공아파트에 설치한 '오르Go 내리Go 건강계단'은 주민들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공공형 어린이집 하반기 14곳 추가 선정

### 9월6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공보육 확충을 위해 2017년도 신규 공공형 어린이집을 14곳 선정키로 하고 오는 9월6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2011년부터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73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14곳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구청에 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평가인증 접수 90점 이상,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등이다. 관할 구청의 1차 확인을 거쳐 광주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심사단에서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10월16일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 등에 따라 3년간 매월 최대 10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후품질관리를 받아야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평가인증 접수 90점 이상,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등이다. 관할 구청의 1차 확인을 거쳐 광주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심사단에서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10월16일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 등에 따라 3년간 매월 최대 10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후품질관리를 받아야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대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 병원

- ★ [의료시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요양병원 (2천평 신축부지 허가완료 포함) 지하층 지상5층 토지 19,860㎡ 건물 2,545㎡ 매매 5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의료시설가능함 (현 상가건물임) 지하층 지상7층 토지 995㎡ 건물 2,030㎡ 매매 47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97㎡ 건물 948㎡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상5층 토지 475㎡ 건물 1,044㎡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350㎡ 건물 3,943㎡ 매매 5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 100억

####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생산관리지역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북구 삼각동 1층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